

한인교회 청소년, 한국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

최근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감소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감하며, 국내외 청소년들의 신앙 실태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넘버즈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다음세대의 신앙 및 생활에 대한 조사를 다수 소개해 왔으나(214호, 229호, 249호 등 참조),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다뤄진 바가 없었다. 이에 뉴욕지역교회협회 의뢰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뉴욕 등 미국 동부지역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주 한인교회(뉴욕지역) 청소년 조사' 결과를 이번 넘버즈 290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번 조사는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예배와 교회 생활, 가정의 영향, 삶의 정체성과 목적의식 등 다양한 영역을 폭넓게 살펴봤으며, 특히 한국교회 청소년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집단이 처한 신앙 환경의 차이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넘버즈 290호를 통해 미주 교회 청소년과 한국교회 청소년이 처한 신앙 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각 지역(나라)에 맞는 다음세대 사역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뉴욕지역) 청소년 조사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뉴욕 등 미국 동부지역 한인교회 소속 청소년(만 11~18세)
조사 방법	모바일조사(스노우볼링 방식) - 1단계 : 교회 목회자에게 설문URL 전달 - 2단계 : 교회 목회자가 교회 내 청소년들에게 문자를 통해 설문 링크 전달
표본 규모	총 165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9월 10일 ~ 2025년 1월 3일 (총 115일간)
조사 주체	뉴욕지역교회협회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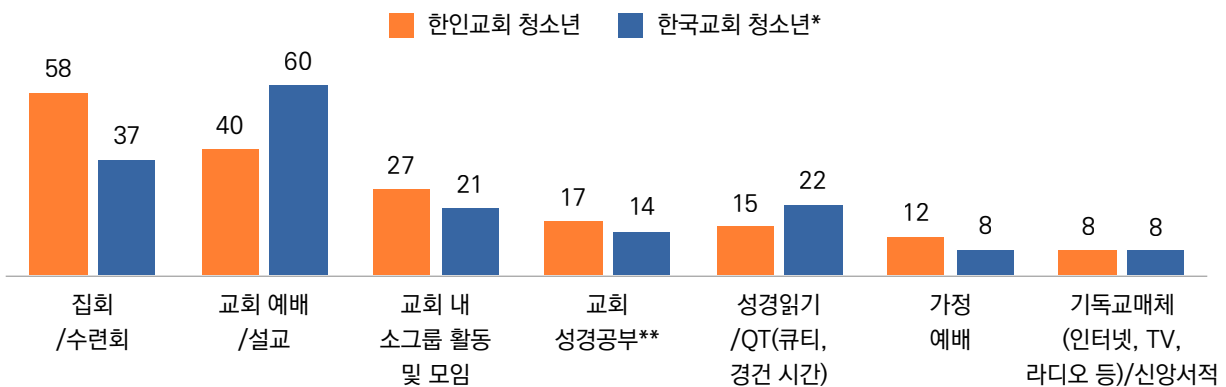
01

[신앙생활]

신앙 성장 도움 요인, 한인 청소년 '수련회', 한국 청소년 '예배'!

- 뉴욕지역 한인교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을 묻은 결과, '집회/수련회'(58%)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한국교회 청소년은 동일 문항에 대해 '교회 예배/설교'(60%)를 가장 많이 선택해 두 집단 간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 한인교회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보다 공동체적 경험(집회/수련회, 소그룹 등)을 통해 신앙에 깊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 요인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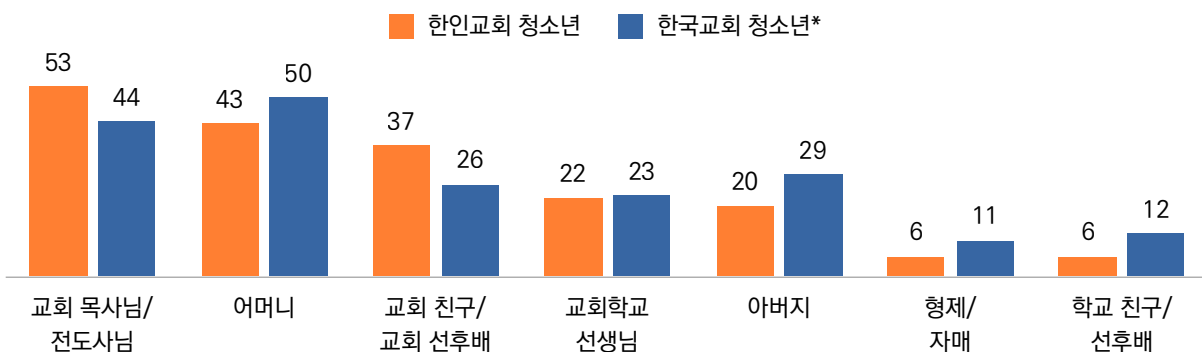
*출처 : 교회탐구센터,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1.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10.10.~10.19)

**한국 청소년의 보기는 '공과공부'였음

신앙생활에 영향 준 사람, 한인 청소년 '목회자', 한국 청소년 '어머니'!

-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은 '교회 목사님/전도사님'(53%)이 가장 높았고, 이어 '어머니' 43%, '교회 친구/교회 선후배' 37% 등의 순이었다.
- 반면 한국 청소년은 '어머니'(50%)를 가장 높게 꼽았고, '교회 목사님/전도사님' 44%, '아버지' 29%가 그 뒤를 이었다.
- 눈에 띄는 점은 미국 한인교회 청소년은 한국과 달리 '교회 목사님/전도사님'이 '어머니'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 또한 한인교회 청소년은 가족 외 '교회 친구/교회 선후배'(3순위)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 청소년은 어머니 이외 가족 내 다른 구성원(아버지, 형제/자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신앙생활에 영향 주는 사람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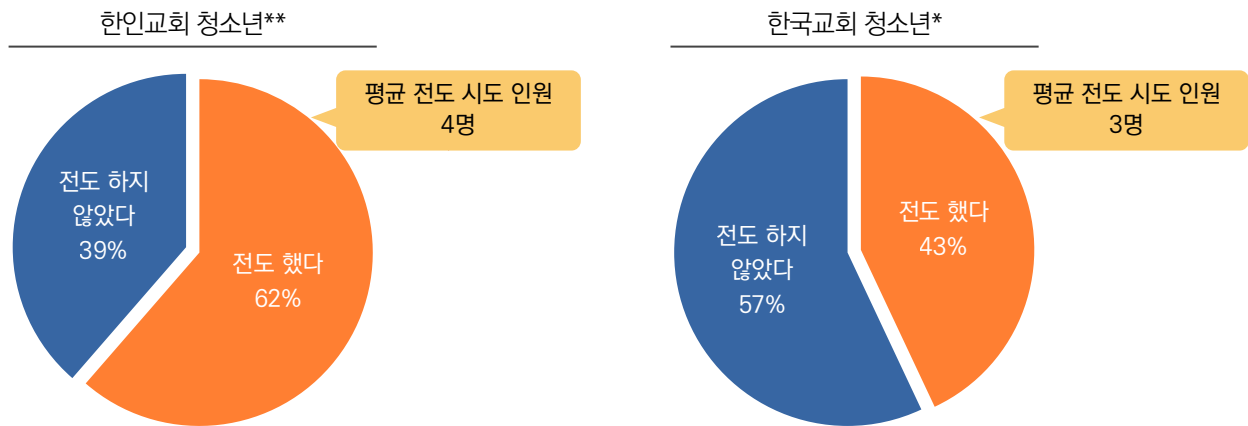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2025.02.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05.~01.11.)

한인교회 청소년의 전도 활동, 한국 청소년보다 적극적!

- 지난 1년간 전도 경험을 묻은 결과, 62%의 한인교회 청소년이 전도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이 시도한 평균 전도 대상은 4명이었다.
- 반면, 한국교회 청소년의 전도 경험률은 43%로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19%p 낮았으며 전도를 시도한 사람 수는 평균 3명으로, 전반적으로 미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전도에 좀 더 열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난 1년간 전도 경험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2025.02.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05.~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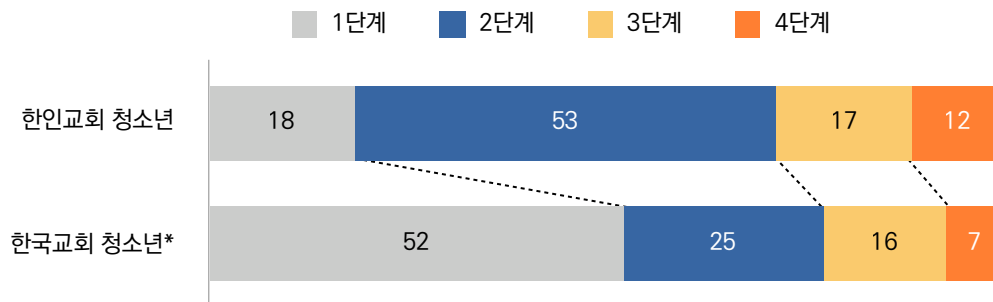
** '전도 했다'는 '전도를 했지만 교회에 데려 오지는 못했다' (38%)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왔다' (24%)를 합한 비율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한인교회 청소년, 한국 청소년보다 신앙 성숙도 더 높아!

- 신앙 수준을 1~4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신앙 수준이 가장 낮은 1단계의 경우 한인교회 청소년은 18%, 한국교회 청소년은 52%로 두 집단간 큰 차이를 보였다.
-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한 4단계 비율은 한인교회 청소년 12%, 한국 청소년 7%로 차이를 보였으며, 3·4단계를 합친 비율도 한인교회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각각 29%, 2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인교회 청소년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본인의 신앙단계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2025.02.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05.~01.11.)

Note)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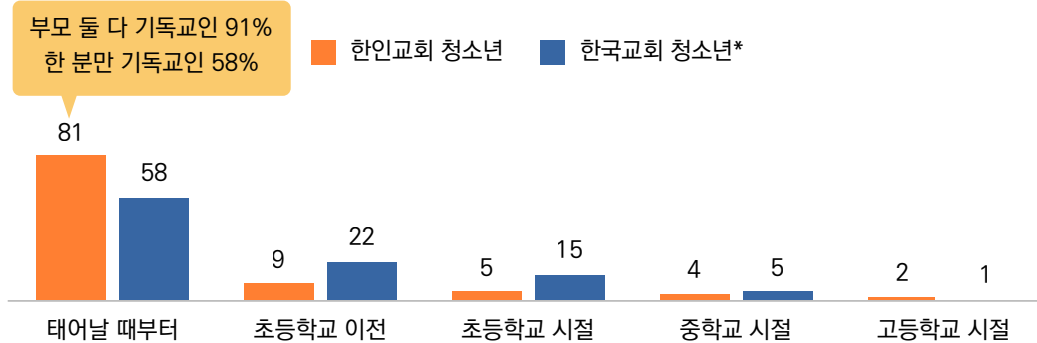
02

[예배/교회생활]

한인교회 청소년 모태신앙 81%, 한국 청소년보다 높아!

- 교회 처음 나온 시기를 묻은 결과,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의 81%가 '태어날 때부터'(모태신앙)라고 응답해, 대부분이 모태신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모두 기독교인'인 경우 모태신앙 비율은 91%, '부모 중 한 명만 기독교인' 경우는 58%였다.
- 한편 한국교회 청소년의 모태신앙 비율은 58%로,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처음 교회에 나온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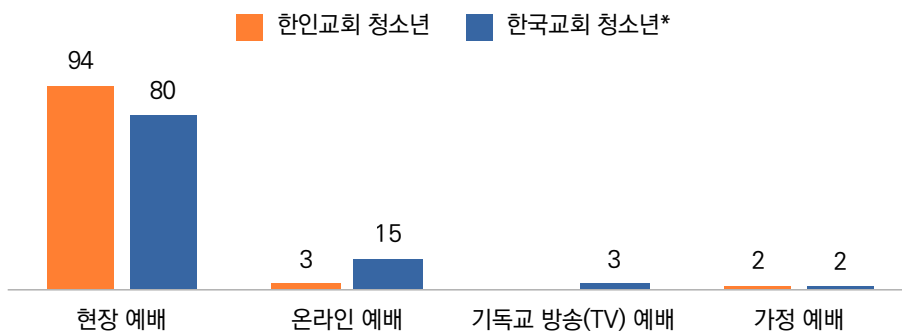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9.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자신에게 가장 맞는 예배 형태, 한인/한국교회 청소년 모두 '현장예배'!

- 어떠한 예배 형태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한인교회 청소년의 94%가 '현장예배'를 선택해 현장예배 선호가 매우 강했다. '온라인 예배' 등 기타 응답은 각각 3% 이하로 매우 낮았다.
- 한국 청소년의 경우도 '현장예배'가 80%로 가장 높았지만, '온라인 예배' 선택 비율이 15%로 한인교회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선호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림] 자신에게 맞는 예배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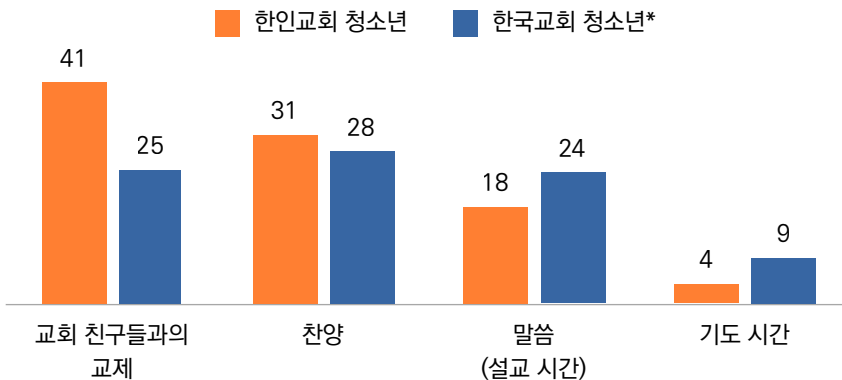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9.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기타는 제외

YOUTH 부서 예배 만족 요인, 한인교회 청소년은 ‘친구들’, 한국교회 청소년은 ‘찬양’!

- 한인교회 청소년의 YOUTH 부서 예배에 대한 만족 요인을 살펴보면, 한인교회 청소년은 ‘교회 친구들과의 교제’ 41%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찬양’ 31%, ‘말씀’ 18% 순이었다. ‘친구들과의 교제’가 예배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한국교회 청소년은 ‘찬양’(28%), ‘교제’(25%), ‘말씀’(24%)이 비슷한 수준의 만족 요소로 나타나, 예배 요소 전반에 걸쳐 만족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YOUTH 부서 예배 만족 요인 (YOUTH 부서 예배에 만족하는 청소년,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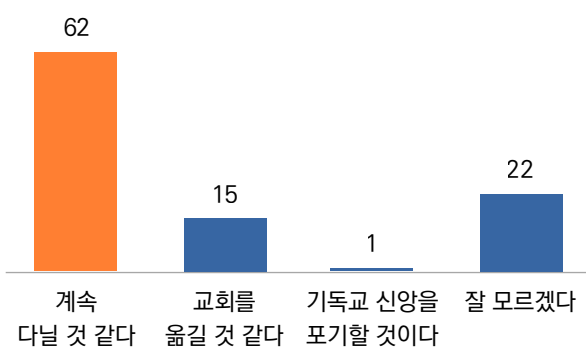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9.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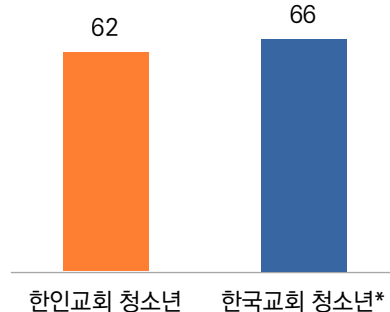
한인교회, 한국교회 청소년 모두 3명 중 1명 가량, 현 교회 계속 출석 불투명!

- 향후 지금 다니는 교회에 계속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한인교회 청소년 62%가 ‘계속 다닐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교회를 옮길 것 같다’ 15%,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 같다’ 1%, ‘잘 모르겠다’ 22%로 나타났다.
- 한편 한국교회 청소년의 ‘계속 출석 의향’ 비율은 66%로, 한인교회 청소년(62%)보다는 소폭 높았다.
- 전체적으로 한인교회, 한국교회 청소년 모두 3명 중 1명 가량은 향후 현 교회에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림] 향후 출석교회 출석 의향 (%)



[그림] 향후 출석교회 ‘계속 다닐 것 같다’ 비율
(한인교회 청소년 vs 한국교회 청소년,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9.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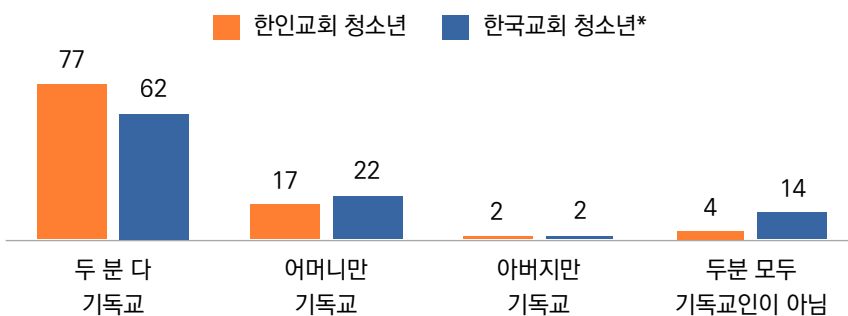
03

[가정신앙과 일상생활]

한인교회/한국교회 청소년 60%이상, 양부모 모두 '기독교'!

- 부모님의 종교를 살펴본 결과, 한인교회 청소년의 경우 77%는 '부모 모두 기독교'인 가정 출신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만 기독교'인 일종의 혼합 가정은 19%, '두 분 비기독교'인 가정은 4%로 조사됐다.
- 한편, 한국 청소년은 '두 분 다 기독교'인 가정은 62%로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15%p 낮았고, 혼합 가정(24%)과 '비기독교 가정'(14%)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한인교회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기독교 중심 가정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부모님 종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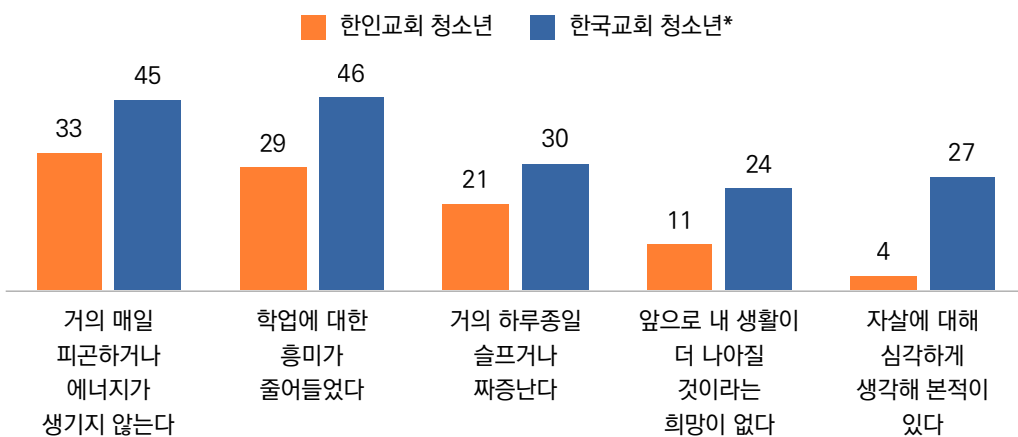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9.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한인교회 청소년, 한국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

- 한인교회 청소년이 일상생활 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한국교회 청소년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무기력, 학업 흥미 감소, 슬픔/짜증, 자살 등 전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이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45%), '학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46%)에는 한국 청소년의 부정적 인식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 전반적으로 한인교회 청소년이 한국교회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일상생활할 때 느끼는 감정('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안산제일교회, 크리스천 중고생 조사, 2021.05.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04.23.)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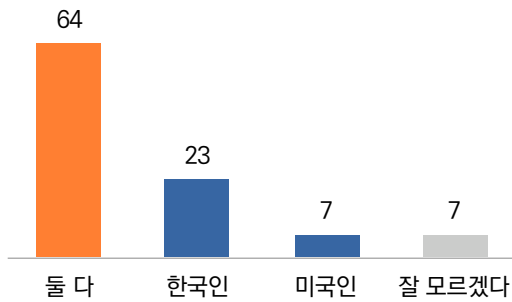
0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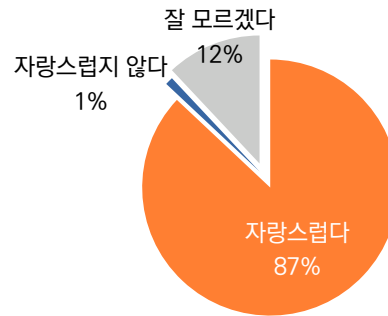
나의 정체성, '한국인 혈통 자랑스럽다' 87%!

- 한인교회 청소년에게 본인의 국가·민족적 정체성을 묻은 결과, '(한국인과 미국인)둘 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인' 23%, '미국인' 7%, '잘 모르겠다' 7% 순이었다.
- 이번에는 한국인 혈통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자랑스럽다'는 의견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림] 자기 정체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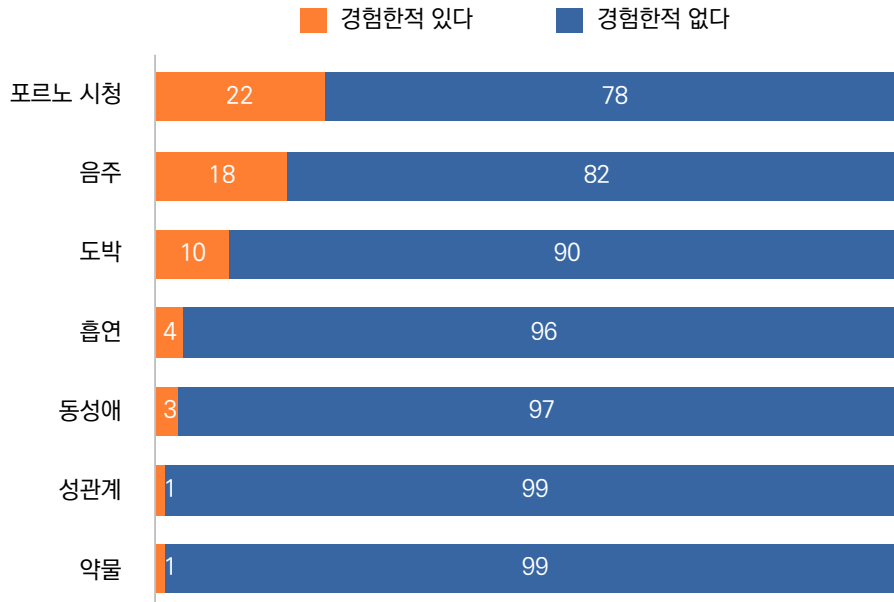
[그림] 한국인 혈통에 대한 생각



한인교회 청소년 5명 중 1명, '포르노 시청' 경험!

-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것을 묻은 결과, '포르노 시청'이 22%로 한인교회 청소년 5명 중 1명은 포르노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음주' 18%, '도박' 10%, '흡연' 4% 등의 순이었다.

[그림] 경험해 본 것 (%)



이번호 요약

1. 신앙 성장 도움 요인, 한인 청소년 ‘수련회’, 한국 청소년 ‘예배’!

– 한인교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을 묻은 결과, ‘집회/수련회’(58%)를 가장 높게 꼽았다. 반면, 한국교회 청소년은 ‘교회 예배/설교’(60%)를 가장 많이 선택해 두 집단 간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2. 신앙생활에 영향 준 사람, 한인 청소년 ‘목회자’, 한국 청소년 ‘어머니’!

–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질문한 결과,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은 ‘교회 목사님/전도사님’(53%), 한국교회 청소년은 ‘어머니’(50%)를 각각 1순위로 꼽아 이 역시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3. 한인교회 청소년, 한국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

– 한인교회 청소년이 일상생활 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한국교회 청소년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무기력, 슬픔/짜증 등 전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이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한인교회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함을 보여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 사역: 대니 권 목사 인터뷰 (SOLA NETWORK)

관련 성경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목회 적용점

한국교회 청소년과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의 신앙 의식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정서적 안정감, 신앙 영향 요인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인교회 청소년은 ‘목회자’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집회·수련회 등 공동체 경험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목회자와의 관계, 토래 교제, 현장 중심의 신앙 체험이 다음세대 신앙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한국교회도 예배 중심을 넘어서 청소년이 토래 및 리더와 깊이 교류할 수 있는 캠프, 소그룹 등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는 단지 설교자나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의 일상과 감정, 정체성의 고민에 공감하고 동행하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다음세대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고민을 시에 맡길 순 없다. 예배와 교육뿐 아니라, 진로, 감정, 관계 등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신앙이 삶의 방향성과 연결되도록 돕는 통합적 돌봄이 요구된다.

또한 한인교회 청소년에 비해 크게 높았던 한국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주목되는데, 입시와 성적요인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기력, 학업 흥미 감소, 자살에 대한 고민 등 힘들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 내에서만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